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합니다.



일상 속에서 재난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유형별 대응능력을 키워 선진안전한국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나라 교육 선진화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전국의 교육과학기술 가족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이웃나라 일본을 강타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만, 일본 열도는 여전히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방사능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불안감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일상에서 인식되고 체득되어야 하는 재난안전문화 정착과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평소의 생활환경속에서 실제적인 재난안전 대응훈련을 통해 대처방법을 숙달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 동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의 교육청, 소속기관 및 출연연구기관, 국립대와 소속단체 등 총 277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2011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응 훈련과 취약분야 대응훈련, 학생 감염병·식중독 관련 대응훈련이며, 마지막 날에는 지진, 화재 대피 및 국가방사능 방재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안전한국훈련은 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재난교육을 통해 재난안전의식을 높여주고 실제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재난대비행동요령을 숙달하게 하여 위기발생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번 「2011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유·초·중등학생을 포함한 교육과학기술부 가족 모두가 일상 속에 자리하는 재난안전의식의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각급학교 및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4. 1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 주호